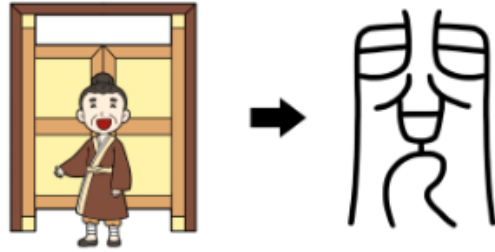


형성문자①



閱

볼[覽]
열

閱자는 '보다'나 '검열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閱자는 門(문 문)자와 覞(기빠할 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覞자는 크게 웃음 짓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閱자는 본래 실내에 앉아 계산하거나 물건을 세는 것을 뜻했던 글자였다. 그러니까 閱자에 쓰인 門자는 '문'이 아닌 '열어보다'라는 의미인 것이다. 閱자는 수효나 계산이 정확한지를 조사하는 뜻으로 쓰이다가 후에 '분간하다'나 '검열하다'와 같은 뜻이 파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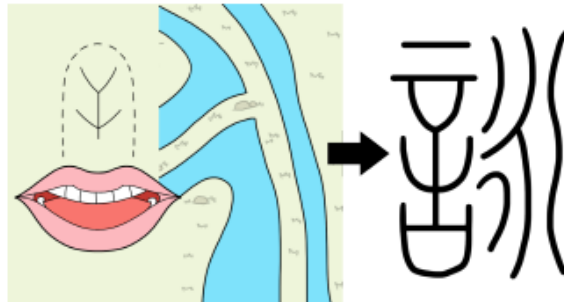
閱

소전

閱

해서

회의문자①



詠

읊을 영:

詠자는 '읊다'나 '(시가를)짓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詠자는 詠(말씀 언)자와 永(길 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永자는 하천이 굽이쳐 흐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길게 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詠자는 이렇게 '길게 늘이다'라는 뜻을 가진 永자에 詠자를 결합한 것으로 시나 노래를 길게 읊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고대의 시나 노래는 잔잔한 음률의 멋을 살려 불렀기 때문에 '(시가를)짓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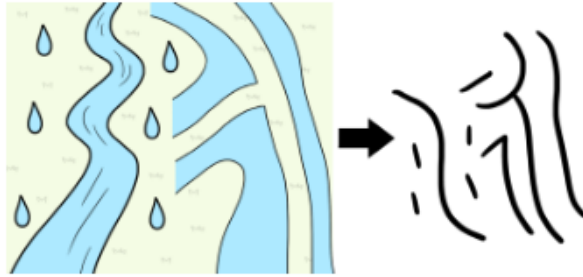
詠

소전

詠

해서

회의문자①



泳

헤엄칠
영:

泳자는 '헤엄치다'나 '자맥질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泳자는 水(물 수)자와 永(길 영)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永자는 굽이쳐 흐르던 물길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 永자가 더해진 泳자는 물에서 오래도록 헤엄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泳자는 본래 잠수하며 수영하는 것을 뜻하던 글자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 위에서 헤엄치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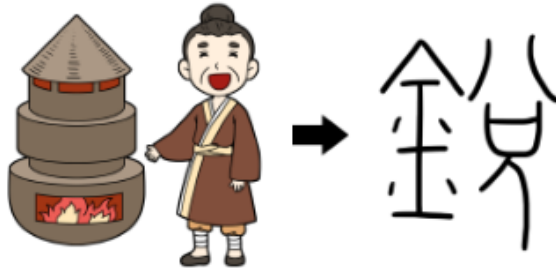
泳

소전

泳

해서

회의문자①



銳

날카로울
예:

銳자는 '날카롭다'나 '민첩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銳자는 金(쇠 금)자와 兌(기뻐할 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兌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기쁘다'나 '바꾸다'라는 뜻이 있다. 그런데 兌자는 '기쁘다'라는 뜻 외에도 '날카롭다'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때는 '예'로 발음한다. 銳자는 본래 칼의 날카로움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래서 '날카롭다'라는 뜻을 가진 兌자에 金자를 더해 '쇠가 날카롭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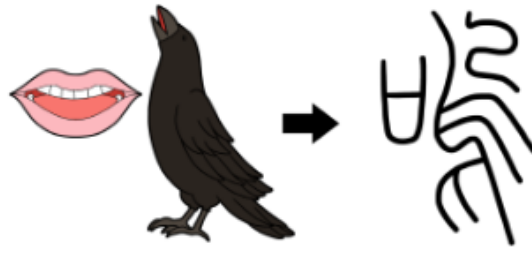
銳

소전

銳

해서

회의문자 ①



鳴

슬플 오

鳴자는 '슬프다'나 '흐느껴 울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鳴자는 口(입 구)자와 烏(까마귀 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烏자는 몸통이 까매 눈이 보이지 않는 까마귀를 그린 것으로 '까마귀'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까마귀를 그린 烏자에 口자가 더해진 鳴자는 까마귀가 우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鳴자는 슬프게 우는 까마귀 소리를 응용한 글자로 슬픔에 복받쳐 운다는 의미에서 '슬프다'나 '흐느껴 울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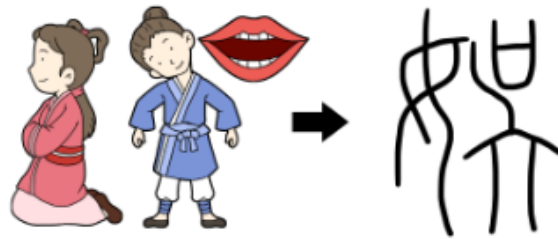
鳴

소전

鳴

해서

회의문자 ①



娛

즐길 오:

娛자는 '즐거워하다'나 '즐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娛자는 女(여자 여)자와 吳(성씨 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吳자는 팔을 엇갈려 휘젓고 있는 사람과 口(입 구)자가 결합한 것이다. 여기에 女자가 결합한 娛자는 남녀가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른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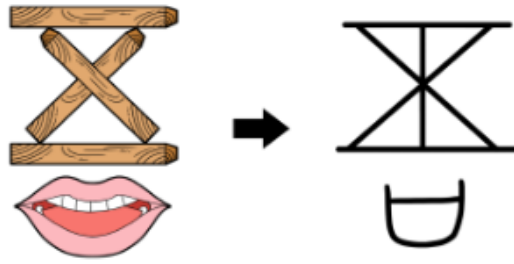
娛

소전

娛

해서

형성문자①



흠

흠자는 '나'나 '우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흠자는 五(다섯 오)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五자는 숫자 '다섯'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흠자는 본래 '글 읽는 소리'나 '나의 말'이라는 뜻으로 쓰였던 글자였다. 그러나 후에 흠자가 자신을 지칭하는 '나'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言(말)자를 더한 語(말씀)자가 '말씀'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나 오

흠

금문

흠

소전

흠

해서

회의문자①



傲

傲자는 '거만하다'나 '날뛰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傲자는 人(사람 인)자와 敖(놀 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敖자는 머리에 깃털을 꽂고 손에는 악기를 들어 한바탕 놀아 제치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놀다'나 '거만하다'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노는 모습에서 거만함이 느껴졌었는지 소전에서는 人자가 더해지면서 '오만하다'나 '거만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거만할
오:

傲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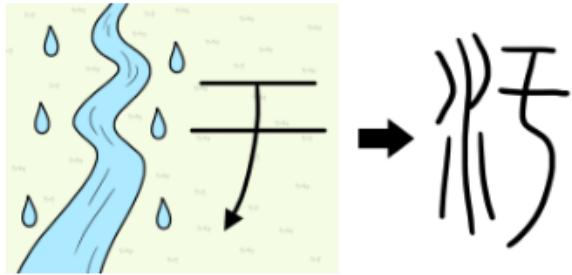
傲

소전

傲

해서

회의문자①



汚

더러울
오:

汚자는 '더럽다', '오염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汚자는 水(물 수)자와 汚(어조사 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汚자는 사물이 구부러진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굽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汚자는 이렇게 구부러짐을 뜻하는 汚자에 水자를 결합한 것으로 물길이 막혔다는 뜻이다. 물이 흐르지 못하면 정체되어 오염된다. 汚자는 바로 그러한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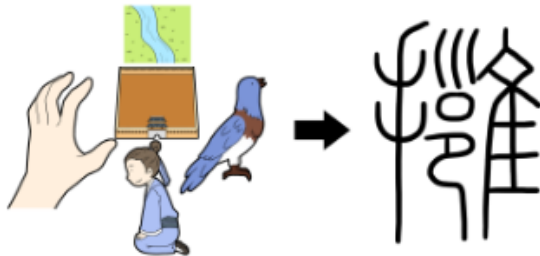
汚

소전

汚

해서

회의문자①



擁

낄
옹:

擁자는 '안다'나 '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擁자는 手(손 수)자와 雍(화할 옹)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雍자는 물 위를 날아오르는 새를 표현한 것으로 '뜻이 맞다'나 '기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뜻이 맞다'라는 뜻을 가진 雍자에 手자가 결합한 擁자는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며 껴안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껴안는 행위는 누군가를 보호하는 모습을 연상 시키기 때문에 擁자에는 '모시다'나 '호위하다'라는 뜻도 파생되어 있다. 그러니 옹립(擁立)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받들어 자리에 세운다는 뜻이다.

擁

소전

擁

해서